

YMCA Timor-Leste, Raonatti

최종 보고서

2014-08-14



티모르에서

3월부터 7월까지 활동소개

IN Timor-Leste

March - July

INDEX

- 떼뚱어 수업
- 아띠플라세
- 한국어 교육
- Home Stay
- 350 PPM





떠뚱어 수업

3월 - 4월

활동내용

- 떼뚝어 읽기, 쓰기, 말하기를 배움. 노래를 이용해 떼뚝어를 익힘

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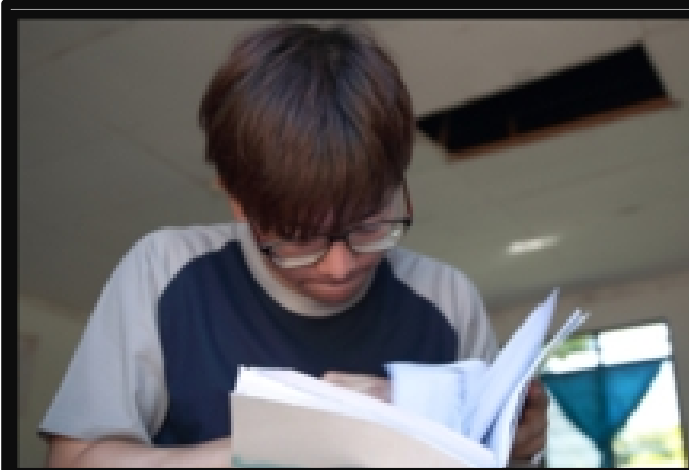
- 현지어 배우기

좋았던 점

- 노래를 이용해 즐겁게 배울 수 있었고, Timor YMCA 스태프들과 더 가까워 짐

아쉬운 점

- 독자적인 학습교재의 부재,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 기간, 동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 부족, 교재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





아띠끌라세

4월 - 7월

활동내용

목적

좋았던 점

- 4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테라산타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, 미술, 과학, 게임 등의 수업을 진행
-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것, 아이들의 창의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,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
 - ★아이들과 즐겁게 함께 하는 것
- 음악 수업시간에 응가송, 올챙이송을 번역하여 가르쳐 아이들이 아이다운 노래로 아이다운 춤을 추면서 놀 수 있도록 가르침
- 특히 아이들이 점프하는 걸 좋아해 그런 점들을 잘 살린 춤들을 가르쳐 함께 즐기면서 수업
- 상대적으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과학시간도 열심히 준비해 다채로운 수업을 함
- 게임 및 미술시간에는 아이들과 소통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
- 참여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, 뽀뽀를 해주는 등 스킨십을 통한 교감 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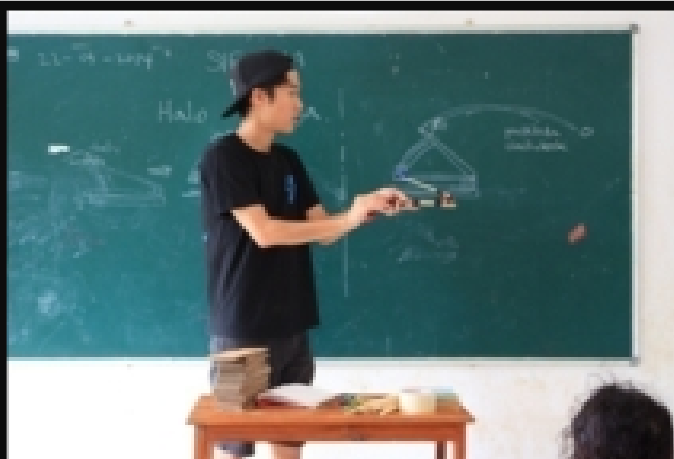
아쉬운 점

- 수업의 준비와 아이디어 부족 (+ 이전 기수들이 이미 한 수업들)
-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대의 폭이 커 수업 방식을 정하는데 어려움 (모든 아이들을 위한 수업 방식을 찾기 어려움)
-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력 부족
- 음악 수업시간에 리코더, 멜로디언 등 여러 악기를 사용하지 못함
-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구하는데 어려움 (스텝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티모르에 맞는 수업방식 변경으로 극복 가능)









A photograph of two young men in a classroom. The man in the foreground is wearing a white tank top with a red collar and a logo, and is pointing towards the left. The man behind him is also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. The background shows a classroom with a whiteboard and some equipment.

한국어 교육

5월 - 7월

활동내용

- 5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 진행

목적

- 청년들과 교류

좋았던 점

-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들이 마지막 수업까지 참여
-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교재를 만들어 쉽고 재미있게 수업 진행 가능
-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다른 활동들도 많이 참여

아쉬운 점

- 때뚝어와 한국어의 언어체계가 달라 어려움
- 정식 교재가 없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준비의 어려움 느낌





Home Stay

6월

활동내용

-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YMCA 센터 근처 마을인 Tera-Santa에서 홈스테이 (각각 다른 집에서)

목적

- 활동 지역 주민과의 교류, 현지 생활 제대로 알기

좋았던 점

- 아띠들 각각의 티모르 가족들이 생김
- 가족, 이웃 사촌들과 많은 의사소통으로 현지어 실력 향상
- 마을 사람들과 친해져 350PPM 캠페인에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

아쉬운 점

- 1주일의 짧은 홈스테이 기간



350 PPM

5월 - 7월

350 ppm

Ita Hakarak halo Saida?

MCA
siasaun Na



활동내용

- 테라산타 마을 청년들과 함께 350 PPM 알리기, 350 PPM 토의, 나무심기, 쓰레기통 만들기, 장바구니 만들기 등 350 PPM 캠페인

목적

-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을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50ppm으로 줄이자는 환경캠페인
- 개개인의 작은 행동이 지역 공동체와 사회 나아가 지구의 반대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킴
- 청년들과의 교류 확대

좋았던 점

- 바닷가에서 실시한 활동의 경우 마을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350ppm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
- 나무심기 활동은 나무심기가 서툰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며 함께 하는 시간
- 350ppm을 계기로 마을 청년들과 함께 활동 하며 가까워지는 계기

아쉬운 점

- 아이들과 여자 청년들은 캠페인 활동에 참여 저조
- 초반, 부족한 떼뚱어 실력으로 센터나 청년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준비에 차질
- 나무 심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로 활동의 어려움
- 나무 심기의 목적 전달 부족
- 어떤 활동들은 예상과 달리 마을 청년들이 참여 저조





개인 소감



감사합니다!